

WEBVTT

00:00:26.438 --> 00:00:27.096

안녕하십니까?

00:00:27.196 --> 00:00:29.398

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.

00:00:29.498 --> 00:00:33.219

익숙함과 생소함
두 가지가 싸웠을 때

00:00:33.367 --> 00:00:36.380

우리는 어떤 편을 들어줄 건가요?

00:00:36.480 --> 00:00:39.702

익숙함에 손을 들어주는 게
더 쉽기는 합니다.

00:00:39.802 --> 00:00:42.889

우리는 낯선 것에 적응하는 건
늘 두렵고 어렵습니다.

00:00:42.989 --> 00:00:45.998

그래서 생소한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

00:00:46.098 --> 00:00:49.119

더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여깁니다.

00:00:49.773 --> 00:00:52.957

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는
익숙함이라는 말 자체가

00:00:53.076 --> 00:00:56.195

가장 위험하고 위기를
부르는 말입니다.

00:00:56.966 --> 00:00:59.864

세상이 급변하면 익숙한 거 좋아하는

00:01:00.033 --> 00:01:03.094

기업과 사람부터
도태되기 때문입니다.

00:01:03.963 --> 00:01:07.025

지금 시대를 일컬어서
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.

00:01:07.125 --> 00:01:10.602

한마디로 세상의 판도가
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1:10.902 --> 00:01:15.513

과거에는 정상이었던 것이 순식간에
비정상이 되는 시대입니다.

00:01:16.260 --> 00:01:19.772

과거와 익숙함 그리고 관성으로부터

00:01:19.872 --> 00:01:23.447

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가
중요해진 시대입니다.

00:01:24.352 --> 00:01:28.762
트렌드는 늘 과거를 지나 현재
그리고 미래를 보며 갑니다.

00:01:28.862 --> 00:01:32.593
즉, 뉴노멀 시대에 더더욱
트렌드를 읽는 안목은

00:01:32.758 --> 00:01:34.862
중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1:34.962 --> 00:01:37.989
카카오뱅크 등장으로
국내 은행권이 쇼크를 받았다는

00:01:38.167 --> 00:01:40.733
이야기를 듣고 저는
쇼크를 받았습니다.

00:01:41.661 --> 00:01:45.218
아니, 카카오뱅크가 세상에
처음 등장한 것도 아니고요.

00:01:45.318 --> 00:01:49.449
이미 중국과 미국에서는
수년 전부터 활발하게

00:01:49.549 --> 00:01:53.554
인터넷은행들이 성과를 거뒀었고
미국의 유수 금융사들은

00:01:53.724 --> 00:01:57.403
IT 회사로의 전환을
지향하며 변신해왔습니다.

00:01:57.503 --> 00:02:02.677
세계 금융계가 수년간
변하는 동안 뭘 하고 있었기에

00:02:02.777 --> 00:02:05.432
카카오뱅크 등장에 충격을
받았다는 걸까요?

00:02:05.939 --> 00:02:09.578
분명 금융의 미래 방향은
이미 수년 전부터

00:02:09.678 --> 00:02:14.655
핀테크를 향하고 있었고 그게
금융회사의 뉴노멀이었습니다.

00:02:15.041 --> 00:02:21.739
다가온 변화를 분명 봤으면서도
외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.

00:02:21.839 --> 00:02:26.582
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자 익숙함이
가진 편안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.

00:02:27.569 --> 00:02:30.743

변화에 대비할 기회를
스스로 견어차는 격입니다.

00:02:30.843 --> 00:02:34.670

한국에서 유행어가 된
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

00:02:34.770 --> 00:02:37.973

산업적 판도에서의 뉴노멀입니다.

00:02:38.073 --> 00:02:41.369

그런데 말만 유행할
뿐이지 막상 기업들의

00:02:41.499 --> 00:02:44.240

과감한 혁신은 별로 없습니다.

00:02:44.340 --> 00:02:48.052

산업적 변화를 감지했고
위기감을 느꼈으면

00:02:48.152 --> 00:02:53.643

사업 방향도 업무 방식도
미래 사업 자체도 바뀌어야 합니다.

00:02:53.743 --> 00:02:59.075

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
객관적이고 냉정하게

00:02:59.175 --> 00:03:01.473

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
00:03:02.305 --> 00:03:05.996

자동차 회사 도요타는
딸기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.

00:03:06.096 --> 00:03:08.936

아니, 자동차회사가 왜 딸기를?

00:03:09.036 --> 00:03:13.695

사실 자동차 회사가
발효 연료 개발을 위해서

00:03:13.795 --> 00:03:16.475

사탕수수 유전자 분석을 했고
여기에서 확보한

00:03:16.581 --> 00:03:20.055

유전자 분석 기술을
응용해서 생산성 높은

00:03:20.155 --> 00:03:22.400

신제품 딸기를 만들었습니다.

00:03:23.347 --> 00:03:26.945

도요타는 자동차 보험도
진출했습니다.

00:03:27.739 --> 00:03:30.926

미래 자동차는 IT 디바이스나
다름없는데

00:03:31.026 --> 00:03:33.681

기존 보험이 이를
잘 대응하지 못합니다.

00:03:33.781 --> 00:03:38.949

결국 미래 자동차를 만드는
회사가 보험사와 손잡고

00:03:39.049 --> 00:03:41.628

IT 회사의 데이터 분석과도 손잡고

00:03:41.728 --> 00:03:44.798

미래의 보험 시장을
만들어가는 겁니다.

00:03:45.222 --> 00:03:46.737

심지어 도요타는 집도 짓습니다.

00:03:46.837 --> 00:03:50.394

철제 구조물을 이용한
건축공법으로 집을 짓는 건데요.

00:03:50.494 --> 00:03:55.150

자동차 만들 때도 용접과 철제
연결공법이 아주 중요하고

00:03:55.250 --> 00:03:58.208

부식을 막는 자동차 도장 기술도
아주 중요한데

00:03:58.233 --> 00:04:00.635

이걸 집에 적용합니다.

00:04:00.830 --> 00:04:04.777

아울러 미래의 집은 자동차와의
연결성이 중요합니다.

00:04:04.877 --> 00:04:07.908

전기차는 집에서 충전하는데
당연히 집과 차는

00:04:08.044 --> 00:04:10.084

서로 별개가 아닌 겁니다.

00:04:11.465 --> 00:04:14.958

뉴노멀 시대의
사업 확장 전략인 겁니다.

00:04:15.607 --> 00:04:17.766

사실 이걸 도요타만 그런 게 아니라

00:04:17.866 --> 00:04:20.941

수많은 회사가 변신과 확장을
계속하고 있습니다.

00:04:21.041 --> 00:04:23.685

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.

00:04:24.573 --> 00:04:27.610

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이
미래 사업을 준비한다면서

00:04:27.710 --> 00:04:29.733

벤치마킹에 의존합니다.

00:04:29.833 --> 00:04:34.052

미래 사업을 한다면서
과거만 들여다봅니다.

00:04:34.953 --> 00:04:37.266

그리고 신사업을 하면서
기존에 하던 사업과의

00:04:37.452 --> 00:04:40.508

연결성을 살리지 못하며
수십 년 쌓아온

00:04:40.648 --> 00:04:45.109

노하우와 별개의 뜬금없는 영역에
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.

00:04:45.441 --> 00:04:48.412

결국 지속적으로 트렌드이자
변화를 읽어보며

00:04:48.578 --> 00:04:51.533

자신의 경쟁력에 맞는
진화와 전환을 위해

00:04:51.633 --> 00:04:53.903

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4:55.861 --> 00:04:58.171

요즘 기업들이 주목하는 agile은

00:04:58.337 --> 00:05:00.599

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나온 말입니다.

00:05:00.699 --> 00:05:04.294

기민하다는 뜻을 가진
이 agile은 일단 해 보고

00:05:04.394 --> 00:05:07.690

아니면 바꾸자는 식의
개발 접근입니다.

00:05:08.357 --> 00:05:11.408

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는 걸
두려워하지 않고

00:05:11.508 --> 00:05:16.565

오류를 계속 수정해감으로써
더 나은 것을 만들어냅니다.

00:05:16.665 --> 00:05:20.991

아울러 고객과 시장 상황에 대한
신속한 대응에도 유리합니다.

00:05:21.444 --> 00:05:24.144

스타트업의 업무 방식이기도 한데요.

00:05:24.244 --> 00:05:28.453

큰 조직이 보고와 계획에
오랜 시간을 쓰는 것과 달리

00:05:28.553 --> 00:05:32.567

작은 조직은 그런 시간적,
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.

00:05:32.747 --> 00:05:38.829

신속성을 위해 개발 과정에서
언제든 문제를 수정하고 대응합니다.

00:05:38.929 --> 00:05:42.635

이건 과거의 기업들로서는
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

00:05:42.735 --> 00:05:45.751

이미 다 알고 있는
제품을 만드는 일에서는

00:05:45.851 --> 00:05:49.172

완전무결한 제품을 만드는 게
중요한 것이지

00:05:49.272 --> 00:05:52.397

조금 더 빠르고 늦는 건
덜 중요했습니다.

00:05:52.497 --> 00:05:56.762

하지만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가
중심이 된 상황에서는

00:05:56.862 --> 00:06:00.204

아무도 해 보지 않은 일을
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00:06:00.304 --> 00:06:04.446

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비즈니스를
도전할 일도 많습니다.

00:06:04.546 --> 00:06:06.782

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06:07.557 --> 00:06:12.007

지금 시대는 빨리 실패하는 것이
경쟁력인 겁니다.

00:06:12.107 --> 00:06:14.710

그래서 agile을
소프트웨어 개발뿐 아니라

00:06:14.856 --> 00:06:18.218

업무 방식이자 비즈니스에서
적용하고 있습니다.

00:06:19.313 --> 00:06:23.565

agile 방식은 기업을 실행 중심의
민첩한 조직으로 만드는데

00:06:23.665 --> 00:06:26.898

지금처럼 비즈니스 환경이
급변하는 시기에서는

00:06:26.998 --> 00:06:28.918

기업의 속도는 중요합니다.

00:06:29.018 --> 00:06:33.547

요즘 글로벌 기업들이
한결같이 수평 조직화와

00:06:33.647 --> 00:06:36.217

agile squad에
적극적입니다.

00:06:36.317 --> 00:06:40.990

이제는 과거의 기억도
현재의 계급장도 내려놓고

00:06:41.090 --> 00:06:43.027

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.

00:06:43.824 --> 00:06:47.155

관료화된 조직을 작고 민첩한
조직으로 바꾸는 건

00:06:47.278 --> 00:06:50.889

결국 기업이 미래에도
생존하기 위해서인데요.

00:06:50.989 --> 00:06:53.580

이건 기업뿐 아니라
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06:53.680 --> 00:06:55.630

변해야 삽니다.

00:06:55.730 --> 00:06:59.113

새롭게 배울 게 있으면
과감히 받아들이고

00:06:59.213 --> 00:07:02.355

내려놓을 게 있으면
과감히 내려놔야 합니다.

00:07:02.455 --> 00:07:06.225

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려면
결국 트렌드를 더 먼저

00:07:06.325 --> 00:07:08.227

그리고 제대로 읽어야겠죠.

00:07:08.972 --> 00:07:13.622

트렌드를 읽는 눈에서 가장
중요한 건 지속적인 접근입니다.

00:07:13.722 --> 00:07:17.059

연말 연초 트렌드 책 한 권
읽는 거로 끝내지 말고

00:07:17.159 --> 00:07:21.697

평소 신문과 잡지, 책에서
새로운 정보들을 보며

00:07:21.797 --> 00:07:25.355
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들을 계속
이해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

00:07:25.455 --> 00:07:29.670
특히 분야별 전문 잡지를
잘 활용해야 합니다.

00:07:29.770 --> 00:07:33.009
전문 잡지는 해당
분야의 최신 정보와

00:07:33.109 --> 00:07:35.964
깊이 있는 분석을
가장 잘 다뤄줍니다.

00:07:36.511 --> 00:07:40.091
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
만나면서 교류하는 사람들이라면

00:07:40.191 --> 00:07:44.265
전문 잡지 없이 전문가들에게서
인사이트를 얻겠지만

00:07:44.365 --> 00:07:47.955
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니
전문 잡지를 잘 활용해서

00:07:48.055 --> 00:07:51.238
전문가들의 머릿속에
자주 들어가 봐야 합니다.

00:07:51.338 --> 00:07:53.720
한국인이 점점 책을
덜 읽는다고 하는데

00:07:53.820 --> 00:07:58.858
놀랍게도 전문직이나 부자들
사이에서는 책을 더 읽습니다.

00:07:59.642 --> 00:08:02.337
이들이 트렌드를 읽는
안목을 더 잘 갖추는 게

00:08:02.470 --> 00:08:05.234
유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

00:08:05.334 --> 00:08:09.606
트렌드는 눈으로만 읽는 게
아니라 제대로 읽었으면

00:08:09.706 --> 00:08:13.782
그 읽은 것을 토대로 우리의
몸도 제대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.

00:08:14.895 --> 00:08:16.403
지금까지 김용섭이었습니다.

00:08:16.556 --> 00:08:17.629
고맙습니다.